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9.10 / NO.19



카메라 뒤, 크레딧 위 영화 만드는 사람들

독립영화
여성 스태프
특집

Independent Film
Female Staff
Special

NOW 19호가 만난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만드는 여성 스태프입니다. 독립영화계에서 일하며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화를 완성시키고, 상영하고, 홍보하며 일을 하고 있기에 이번 기획은 사실 끝없이 커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발을 댄다고 생각하며 영화의 촬영, 편집, 음향을 담당하는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일을,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할 때마다 듣는 사람마저 영화를 사랑하게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관객에게, 동료에게,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닿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튼튼한 용기를 주는 말들을 곁에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RELAY TALK와 다른 영화 말고 너 역시 꾸준히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코너의 재미는 필자건, 글의 주제건, 다루는 영화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대상의 몰랐던 면을 보여준다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주 지역에서 미디어 운동을 하며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원주독상영화제를 함께 만들어온 한누리 사무차장. 그리고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극장을 꾸려가고 있는 전한솔 시네마 매니저의 '다른 영화 말고 너' 코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보며 예원에게 마음을 준 반쯤-이방인-영화하는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느꼈습니다.

이번 NOW 19호는 지난 6월 발간된 첫 장편을 개봉한 여성 감독들을 만난 18호와 연작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갖고있던 '내 주변 가까이, 그리고 멀리 독립영화계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동료 여성영화인과 여성관객들이 더 오래, 즐겁게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랫동안 함께 응원하고 서로 도와온 기획위원과 취재, 포토그래퍼와 함께 더 늦지않게 지면으로 옮깁니다. 지난 호에 이어, NOW를 통해 영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오늘날 독립영화계의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어 기쁩니다. 더 열심히, 많이, 적극적으로 듣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글 / 김송요, 김지은

03

SPECIAL

04

이영림 편집기사

08

김보라 촬영감독

12

최지영 사운드 디자이너

16 다른 영화 말고 너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인디스페이스 전한솔

17 릴레이토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한누리

18 SIFF NOW

월드 쇼케이스 - 스위스 현장기록

20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Independent Film Female Staff Special

엔딩크레딧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를 때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NOW 19호는 바로 그 이름들, 바로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뷰파인더 저편에서 영화라는 세상을 담고, 편집실에서 그 세상을 꺾매고, 녹음실에서 그 세상에 소리를 입히는 사람들. 때로는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함께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 여성 스태프를 통해 바라보는 독립영화엔 사뭇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엔딩크레딧이 흐르기 전, 이들이 기울였던 마음과 비례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를 향해

편집기사 이영림

<69세>(임선애, 2019)
 <밤의 문이 열린다>(유은정, 2018)
 <페르소나 - 러브 세트>(이경미, 2018)
 <아이들 권한대행>(윤성호, 박현진, 2017)
 <살아남은 아이>(신동석, 2017)
 <허치하이크>(정희재, 2017)
 <아파트 생태계>(정재은, 2017)
 <나비잠>(정재은, 2017)
 <시인의 사랑>(김양희, 2017)
 <범죄의 여왕>(이요셉, 2016)
 <유리정원>(신수원, 2016)
 <초인>(서은영, 2015)
 <도희야>(정주리, 2013)



<도희야>를 시작으로 <초인>, <유리정원>, <범죄의 여왕>, <나비잠>, 최근 개봉한 <밤의 문이 열린다>까지 이어지는 이영림 편집기사의 필모그래피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는 밀도 있고 단단한 영화. 장르도 이야기도 저마다 다르지만, 이 영화들이 가진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말을 고를 때 그의 눈빛에서 컷을 골라 영화를 만들 때의 번뜩임을 느꼈다. 장면이라는 조각을 이어 붙여 영화라는 매듭을 짓는 사람. 이영림 편집기사를 만났다.

운영하는 스튜디오 이름이 ‘수영장’인 이유가 궁금하다.

같이 편집실을 운영하는 김수진 기사와 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왔다. ‘수진과 영림의 장’이라는 뜻에서 ‘수영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 일을 하고 싶어서 영화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처음 편집에 대해 배웠는데, 여러 세부 전공 중 가장 잘 맞고 재밌어서 전공으로 택하게 됐다.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드라마 편집으로 편집일을 시작했고, 영화 데뷔작은 <도희야>다. 정주리 감독과는 같은 학교에서 만나 인연이 됐다.

영화를 둘러싼 수많은 일 중 특별히 편집에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는지.

영화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감독, 즉 연출에 대해서만 아는 경우가 많을 거다. 나도 그랬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연출 말고도 다양한 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화 편집이 괴로우면서도 즐거웠다. 사실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야기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감정을 잘 느끼는 편인 것 같긴 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재창조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편집이 바로 그런 일이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일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꼼꼼하고 끈기 있게 해내야 하는 일을 흔히들 엉덩이로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그만큼 집중력도, 체력도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가진 감정의 결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방법을 고민하기도 한다. 이야기와 설명과 연기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말이다. 당연히 체력도 정말 많이 요구된다. 앉아서만 일하다 보니 현장 일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다. 신기할 때가 많다.(웃음)

작품을 택하는 기준을 따로 두는 편인가?

아무래도 나는 선택받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선택받는 입장이라고 해도 작업을 할지 안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마음이 움직이는 작품이나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 래야 나도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편집에 참여한 영화 <69세>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이 사건을 단순히 소재로만 쓰지 않았다.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좋은 영화라 함께하게 됐다.

작업한 영화 장르가 참 다양하다.

나는 장르를 떠나 그 영화에 맞게 편집하는 걸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영화의 본질에 가까운 특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 유은정 감독과는 단편 영화 <밀실>(2016)과 최근 개봉한 <밤의 문이 열린다>를 함께 했다. 감독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영화라고 느껴서 즐겁게 작업했다. 유은정 감독이 워낙 공포와 판타지에 관심이 많지 않다. 그 지점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정재는 감독과는 <나비잠>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고, 인연이 되어 다큐멘터리 영화인 <아파트 생태계>에도 참여했다. 정재는 감독의 오랜 팬이기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영화가 재밌었다. 이경미 감독과도 몇 작품을 같이 했다. 영화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분이다.

컷을 고르며 끝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연출자와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처음에는 감독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 많은 컷을 활용해 편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의도와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내가 앞서 생각을 정리해놓았다고 해도, 감독이 편집 과정을 받아들이 수 있게 시간을 주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조율은 편집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영화는 많은 자본을 들여, 많은 사람과 함께 만드는 것이지 않나. 여러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편집은 영화 제작 과정 중 ‘어떻게 이야기를 완성하느냐’ 단계에 속한다. 모두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과정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편집자가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순간마다 기준은 언제나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컷을 빼고, 덜어내고, 합친다고 해도 연출자가 말하려는 큰 의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화가 가진 의도를 해치지 않는 것. 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한 영화를 편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나? 현장에 가기도 하는지?

일단 시나리오를 열심히 보고(웃음) 시나리오보다는 씬마다 정리해둔 소스를 더 열심히 확인한다. 그다음 붙여놓은 A컷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마주한다. 전체를 보면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편집을 많이 수정한다. 전체를 보아야 '이 영화가 이런 이야기구나', '그럼 이 씬은 이런 역할을 해야겠구나'가 명확하게 와닿는다. 언제나 전체 안에서 각각의 장면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컷을 붙여나간다. 현장에는 응원차 갈 뿐이다.(웃음) 현장 모니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편집실에서 그림과 나,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서만 마주하는 상태로 영화의 첫 순간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페르소나>를 작업했고, 최근에는 드라마 <보검>을 작업 중이라고 들었다. 상영 환경의 차이가 편집에도 영향을 끼치나?

당연히 고려한다. 이제는 영상을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는 옵션이 생긴 것이다. 샷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도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고민하게 됐다. '웹드라마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웃음) 윤성호 감독과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 홍보 영상 아웃풋을 세로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요즘은 세로 프레임으로 된 광고나 가수의 라이브 영상이 많아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도가 많지 않아서 생소했던 기억이 난다. 어떤 환경에서 이 작품이 관객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지 고려해 작품마다 호흡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 보는 일이 힘들 것도 같다. 나같이 끈기가 없는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웃음)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걸 너무 좋아했다. 좋아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백 번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영화를 처음 볼 때의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다.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봐도 웃긴 장면은 웃기고, 슬픈 장면은 슬프다. 몇 번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영화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의 마음도 남다를 것 같다.

극장에서 완성된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느끼는 감정은 그거다, "이 영화 참 좋다!"(웃음) 관객들과 영화를 같이 볼 때는 반응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의도대로 만든 장면에서 반응이 올 때 굉장히 보람차고 즐겁기도 하다.

그동안 참여했던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참여한 모든 작업이 다 기억에 남아서 한 작품만 꼽기가 쉽지 않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정말 힘들다.(웃음) 음... 생각해보니 정희재 감독의 <히치하이크>라는 영화 GV를 하러 갔다가, 이 인터뷰를 수락하게 되었으니까, <히치하이크>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영화가 가진 힘이나 재미에 비해 관객에게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꼭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열여섯 살 '정애'의 감정을 따라가는 영화이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주인공을 연기한 노정의 배우가 진짜 정애로 보인다.

학교로 출장을 하기도 한다.

편집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학교 처음 들어온 1학년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컴퓨터 켜는 법부터 알려준다.(웃음) 고학년이 되면 직접 찍은 작품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단계별로 맞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기존 영화의 편집을 분석하고, '어떤 편집이 좋은 편집일까' 같이 고민하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편집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좋은 편집은 있는 것 같다.

좋은 편집이란 무엇인가? 편집이 좋은 영화를 한 편 추천한다면?

어떤 영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야만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끔 '어떤 영화로 편집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이 질문에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편집이 가장 잘된 영화'라고 답할 때가 많다. '이 영화가 좋은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할까' 역추적해보면 영화를 분석하기 좀 더 쉬워지는 것 같다. 적어도 내가 그



영화 한 편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이 좋은 영화를 좋아한다.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자면 <드라이브>(니콜라스 윈딩 레픈, 2011)의 편집을 예로 들 수 있다. 굉장히 우아하달까.(웃음) 영화 중간중간에 주인공의 감정에 따라 의식의 흐름처럼 편집된 장면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영화가 감정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듯 느껴졌다. ‘편집이 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영화 학교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영화도 있나?

이 질문에는 언제나 <허공예의 질주>(시드니 루멧, 1988)라고 답할 수 있다!

영화 편집이라는 일의 장점은 무엇인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인 친구가 자기는 가끔 “완성된 영화를 보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너는 완성된 영화와 내가 한 작업 사이의 거리감이 적으니 좋겠다, 네가 편집한 그대로 극장에 걸리니까”는 말을 했다. 편집을 거치고서도 이야기가 변할 수 있다. 아예 씬 순서가 바뀌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편집이라는 공정이 이야기를, 그림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는 점이 참 좋다. 물론 CG나 DI도 남아있지만. 편집은 관객들에게 어떻게 우리 영화를 소개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영화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과정이다.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무엇보다 영화를 보고, 좋아하고, 마음이 움직이던 순간을 온전히 담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편집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어제 <69세>의 촬영감독님이 임선애 감독에게 보낸 문자를 전달 받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되게 행복해졌다. “영화의 완성도가 좋으니까 모든 파트의 이야기가 다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더라.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촬영자와 연출자는 어디에서 어떤 컷을 보여줄지, 여기서 왜 컷을 나누는지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함께하는 모두의 지혜를 한 데 모아야 한다. 거기엔 당연히 편집기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나는 이 영화의 촬영 감독도, 연기자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오직 편집실에서 촬영감독이 만들어낸 샷, 배우가 해낸 연기를 그림으로만 마주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완성된 영화를 보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가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느껴져서 참 보람차고 따듯했다.

반대로 단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화 현장에는 현장 노조가 있다. 하지만 이 노조가 사실 후반작업 스태프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움직임도 생기고 있고, 의식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도 하다. 제작사나 연출자가 합리적으로 작업자들의 시간을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장처럼 되고 있지는 않다. 근로 시간 등 여러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좋겠다.

편집 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저는 혼자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현장보다는 편집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편집도 협업의 과정이다. 혼자 하는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집을 선택했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물론 편집실에서 혼자 싸우는 시간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공동작업으로 해내는 일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화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어떤 장르건 그 영화에 맞는 작업을 하는, 좋은 영화를 만드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좋은 시선을 가진 영화를 만들어내는 편집자가 되고 싶다.

취재 / 유정미

사진 / 유수진

여전히 가장 재미있는, 몸쓸 희열감에 대하여

촬영감독 김보라

촬영

벨브를 잠근다(박지혜, 2018)
극장쪽으로.(유지영, 2017)
오징어(박유찬, 2013)
가정방문(김도영, 2012)
아파트먼트 프로젝트: 3개의 씬(김계중, 2010)
야수와 동정의 밤(박수민, 2009)

조명

나만 없어 고양이(북은석·신혜진, 2019)
극장쪽으로.(유지영 2017)



희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 촬영자가 그렇다. 제법 무거운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장비보다도 무거운 것이 촬영자가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말하는 그. 아직도 컷가에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는 그. 영화를 두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왠지 모를 단단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 여성 촬영자, 김보라 촬영감독을 만나 보았다.

아무래도 첫 질문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고 싶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구나’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릴 땐 공부와 대학은 누구나 거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무난하게 자라온 나 역시 다른 많은 사람처럼 십 대 때 공부를 하고, 그 시절을 지나선 대학에 진학했다. 나는 학부제 세대였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다.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공부하는 방식에 잘 친숙해지지 못했고, 그렇게 20대 초반을 대학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보냈던 것 같다.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다 보니 학교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과 어울리는 일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결국 서서히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때 틈틈이 영화를 보러 다녔다. 당시에는 종로, 홍대 일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카페도 있었고, 조조 영화 티켓값도 아주 저렴해서 많이 보러 다닐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영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있었다기 보다는 영화를 보는 게 일종의 도피처였던 것 같다. 그렇게 영화 보는 것이 취미가 되었을 즈음 타과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공부한 책이 『영화의 이해』(루이스 자네티)였다. 아침 여덟 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이었는데도 공부하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졸업 후 다시 영화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영화를 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도 워낙 많이 들었고, 대신 한겨레 VJ 워크숍에 다니기 시작했다.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같아지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것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16mm 촬영 워크숍에도 참여했는데 한번은 신청 인원이 적어 폐강하고, 또 한번은 수업 진행 중 수강생의 감소로 수업이 없어졌다. 세 번 정도를 반복하고서야 드디어 16mm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접하게 된 카메라 덕분에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촬영의 매력은 무엇일까?

사실 처음엔 카메라 뒤에 숨으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연출이나 프로듀서처럼 직접 나서서 많은 사람과 갈등을 풀기보다는 카메라라는 무기를 앞에 두려 했던 거다. 다른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성격에 맞다고도 느꼈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도 무척 매력적이었다. 그때 처음 들은, 깃가를 맴도는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신기하게도, 숨기 위해 찾은 카메라가 나를 점점 밖으로 꺼내준 것 같다.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가?

처음 ‘맡았다’고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촬영한 영화가 아닐까 한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촬영 전공으로 단편 1작품, 16mm 1작품을 찍었는데 드라마가 아닌 실험적인 영상이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재학하는 1년 동안 내 능력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딱 골라지지가 않는다. ‘이건 재밌었다’, ‘이건 아쉽다’하는 작품은 많지만 정말 뼈와 살을 갈아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은 아직 없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의미로 ‘탈탈 털릴’ 수 있는 작품, 이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싶게 에너지를 쏟는 작품을 만나고 싶다. 예전에는 항상 내 촬영이나 조명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섰고, 작품을 찍는 중엔 ‘조금 더 잘 찍어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음 작품의 ‘쿨’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하는 마음이 들고는 했다. 요즘에는 작업에 대한 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한 것 같다. 이젠 촬영이 잘 된 작품도 좋지만, 영화로서의 본질 자체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 또한 스스로를 단지 촬영·조명을 위한 작업자가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일원으로 여기려고 한다. 현장에 있는 다른 이보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하려고 한다. 처음 카메라 뒤에 숨었던 나 자신을 생각하면 성장한 부분이기도 하다.

촬영 기법이 돋보이는 영화 한 편을 꼽아주신다면?

물론 취향에 따라 꼽을 수 있는 영화가 천차만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촬영이 잘 보이지 않는 영화를 좋아한다. 무심하다면 무심할 수 있는,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한 느낌을 좋아한다. 때로는 촬영 스타일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출, 연기, 스토리 등과 잘 어우러져서 촬영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혹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 한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레 촬영되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좋아하는 영화를 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꾸준히 바뀌는 편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엔자>(2010), <러스트 앤 본>(2012)처럼 인물과 함께 숨 쉬는 듯한 촬영에 많이 끌리고는 했다. 강렬한 빛을 담아내는 방식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좋았던 영화가 있다면 <줄 위의 종달새>(1990)와 <쇼생크 탈출>(1994)이다.



여성 영화인으로서 느끼는, 최근 변화한 현장의 분위기가 있다면?

아직은 상업영화나 드라마 등 독립영화 밖의 경험은 적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현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내가 아는 영화들을 예로 들자면,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많아졌다. 최근 촬영한 단편 두 편도 모두 여성의 이야기였다. 한 편에는 남자는 전혀 등장조차 하지 않고, 한 편에는 무기력하게 등장할 뿐이다. 촬영 현장에도 여자 스태프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현장 가면 촬영팀, 조명팀, 그립팀, 사운드팀은 거의 남자 스태프였다. 미술, 분장, 의상, 스크립터 정도가 여자 스태프였다. 그에 비하면 요즘에는 여자 스태프가 정말 늘어났다. 현장에서 ‘여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저 없어져야 할 선입견이 남았을 뿐이다. 한편 단순히 노동 현장의 일원으로 보았을 때 촬영장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느낀다.

아무래도 촬영감독이 남성비율이 더 많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여성 촬영감독으로써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기술적인 면에선 여성이기 때문에 맞닥뜨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성도 얼마든 장비를 다룰 수 있고, 카메라가 무거워서 안 된다느니 하는 소리도 옛말이다. 여성 촬영자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참 말발이 안 먹힌다’는 걸 자주 느낀다.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너무 많다. 그만큼 여러 일이 있었지만 모두 지나고 봤을 때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남자 촬영자였다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같은 행동을 했을까?’ 묻게 되는 경험이었다. 나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합당한 논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레 의심을 품고, 재차 묻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다.

나에게 영화란?

나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스스로는 몸풀 희열이라고 말한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그 너머의 현장을 포착할 때면, 오직 세상에서 그것만이 눈에 들어온다. 화면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암흑일 뿐이다. 마치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볼 때처럼 그 순간만큼은 주변 모든 것을 잊고 화면에 빠져들어간다.

현장에 필요한 것,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당연한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공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숙소, 화장실 등의 기본적 복지 문제는 여성 스태프가 가장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 하나다. 모든 스태프가 최소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숙소, 화장실, 위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여성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여성 스태프라고 한 까닭은 이럴테면 생리할 때 같은, 곤란한 상황을 여성 스태프가 마주했을 때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생리 중인 사람이 이용하기 마땅한 화장실이 현장에 없다는 걸 매번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 때 어렵다.

스스로 성장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촬영자에게 묻는다면 다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웃음) 예전에는 단지 앵글이 어떻고, 노출이 어떻고, 포커스가 어떤지 맞추고 따라가기에 바

빳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 자신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에 여유롭게 대처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중요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법을 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생기더라.(웃음) 더불어 이제는 현장에서 주어진 조건 아래 최선을 찾아내는 나름의 순발력도 생겼다. 예전에는 내가 준비한 것을 실행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현장의 분위기나 화면 속 인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됐고, 상황 안에서 더 재미있는 화면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재미있는 게 아닐까. 영화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내가 성장한 만큼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고민한 끝에 또 조금씩 성장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내게는 여전히 영화가 가장 재미있다.

촬영 감독으로서 더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연출과 배우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배우를 설득할 만큼의 내공이나 친밀한 교감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연출자 고유의 권한과 몫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가끔 배우가 이상하게 촬영되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조용히 감독에게 이미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리고, 직접적으로 배우에게 알리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다.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찾게 되어도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로 소비할 만큼 중요한 장면인지 판단한 후에 제안하는 편이다. 또한 결정을 번복하기보다는 되도록 처음 카메라 위치를 선정하고, 렌즈를 선택할 때에 연출자에게 두어 가지의 선택을 직접 보여주고 결정하는 편이다.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해서 동선과 배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되도록 프리던계에서 연출자와 소통을 마치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더 좋은 무언가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출이 원하지 않는다면 애써 설득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버전을 마련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외치며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찍곤 한다. 최근엔 촬영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새로운 버전을 찍고 싶은 쇼트들이 생기고는 했는데, 연출자들이 흔쾌히 동의해주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실제로 편집에도 사용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 직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어떤 식으로든 영화에 드러나게 되어있다. 특히나 촬영자라면 그것이 화면에 드러난다. 영화는 산업이기에 요즘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다. 특히 상업영화에서 그 요구 수준이란 건 실제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강도보다 훨씬 더 그럴싸하고 거대해 보이게 촬영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어쩐지 스타일이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는 거기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촬영감독으로서의 내가 반영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좋은 영화 혹은 잘 찍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행에 따르고 기술의 발전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

는지를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성 촬영자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여성이라고 촬영하기 불리하다는 주변의 소리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카메라가 워낙 가벼워졌다. 여자아이기에 신체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저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과 정신력만 있으면 된다. 더불어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고도 말해주고 싶다.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좋다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기보다는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또한 성장의 과정이지 않을까. 여성 촬영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양보하지 않는,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 분들이 많다. 촬영은 생각보다 책임이 많이 요구되는 파트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를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촬영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영화의 파트가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촬영의 경우 특히나 한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현장에서 특히 노력하는 점이나 신경 쓰는 점은?

예전에 공부를 하던 중 선생님이 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보라, 넌 스케줄을 짚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짚는 거야!” 당시 촬영 전날 즈음에는 항상 조감독과 함께 앉아 전체 촬영 분량을 5-10분 단위로 쪼개서 플랜을 세우곤 했다. 그즈음 듣게 된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개안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세팅 시간, 촬영 시간, 이동 시간 등 스케줄을 따라가며 촬영하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던 스스로가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예산 독립영화의 경우 감독이 제작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부분, 스케줄 관련한 내용을 감독과 나눌 시간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촬영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 프리 초기 단계에 순전히 촬영, 조명 관점으로 스케줄을 짜보는 편이다. 각 씬별로 소요될 것 같은 촬영 시간도 시나리오 분량과 대사 기준으로만 대략적으로 상상해본다. 정작 쇼트는 아직 논의되기 전인데 제멋대로 혼자 그린 상상이다.(웃음) 로케이션과 배우 스케줄이 어느 정도 나올 즈음에 그것을 연출팀과 공유한다. 순전히 촬영, 조명 관점에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스케줄이니 도움이 되면 참고하시고 아니면 무시하셔도 좋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촬영 스케줄, 장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되도록 빨리 ‘쳐’내고 촬영 시작일에 다가갈수록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많은 것을 시도하기에는 가난한 환경이지만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한다. 화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디테일을 만들어 상상하며 막연하게 무언가를 궁리하기도 한다. 프리 초기에 시나리오를 읽으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거나 단순한 쇼트를 그리기도 하는데, 새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초기 시나리오를 지침해 함께 챙겨 보는 편이다. 때로는 초기 시나리오 위에 덧댄 생각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어떤 상태로 몰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감독과 대화하는 데 있어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 참고하는 것도 물론 좋은 소통이겠으나 선택 가능한

현실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전체적 쇼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할지 논의하려고 논의하는 편이다.

앞으로의 목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직 장편 촬영감독을 하지 못했다. 단편 촬영도 매력적이고 중요한 작업이지만, 아무래도 첫 장편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언제쯤 나의 첫 장편을 찍게 될지, 어떤 작품을 찍게 될지 당연히 궁금하다. 나의 첫 장편이 어떤 영화일지가 궁금한 만큼, 그 못지않게 스스로가 작업을 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컨디션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촬영감독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내가 100분 정도 되는 긴 영화를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장편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도 궁금하고. 어쩌면 나의 바로 이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취재 / 이나현

사진 / 유수진

귀를 기울이면

사운드 디자이너 최지영

동시녹음

오목소녀(백승화, 2018)

사운드

우리는 매일매일(강유가람, 2019)

당신의 사월(주현숙,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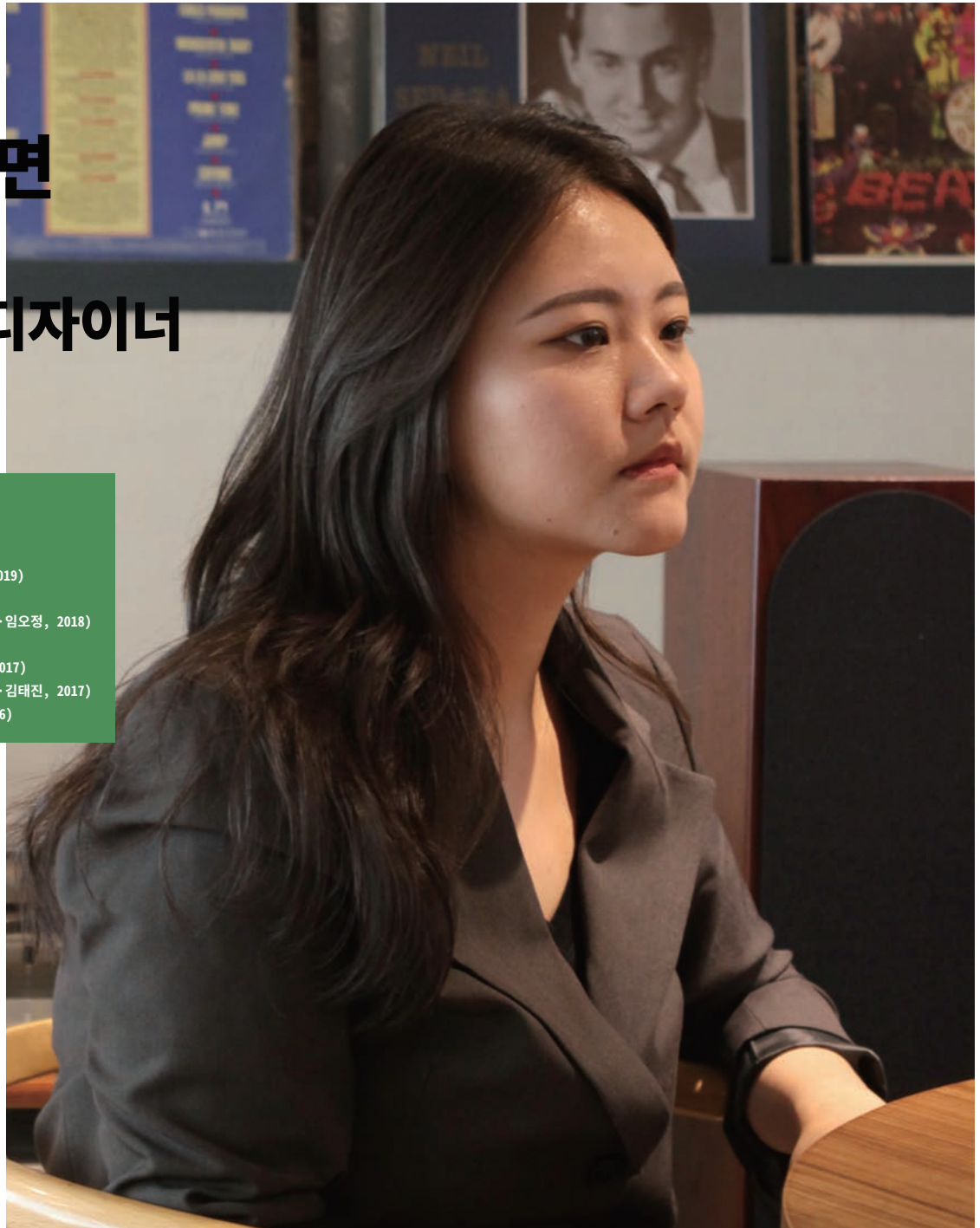
한낮의 피크닉(강동완·김한라·임오정, 2018)

더 블랙(이마리오, 2018)

걸스 온 탑(이옥섭·구교환, 2017)

너와 극장에서(유지영·정가영·김태진, 2017)

공동정범(김일란·이혁상, 2016)



침착하게 풍경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가만가만히 말을 곱씹고 이야기를 한다. 겸손히 자신을 소개하지만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만큼은 숨김없이 커다랗다. 농담처럼 영화가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결같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퇴근 후에도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하는 최지영 사운드 디자이너 얘기다.

영화음향 관련 작업을 부르는 이름이 뒤섞여 있다. 믹싱,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에디팅, 같은 뜻인데 음향 편집이라고도 하고. 평소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는지 궁금하다.

영화가 직업이 아닌 이들에겐 그냥 영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얘기하고, 영화하는 분들에게는 믹싱하는 사람, 후반작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독립 영화 음향은 업무가 크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하는 업무를 포괄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작업하러 녹음실에 온 분들이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땐 민망해서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기도 했다.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원래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서 서울예술대학교에 들어갔다. 일학년 때 처음 선배들 졸업작품에 스태프로 불려갔는데, 키가 크니 붐 오퍼레이터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첫 스태프로 붐 오퍼레이터로 했는데 그게 잘 맞았다. 연출부나 촬영부와 달리 단출하게 두어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편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음향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미디어엑트 표용수 기사 수업을 들었고 운 좋게도 그 인연으로 미디어엑트에서 일하게 됐다.

학교 다닐 때 연출을 해보니까, 남 입장을 자꾸 걱정하고 고민하는 성격 때문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다. 어릴 때 클라리넷도 잠깐 배웠고, 영화도 음악영화를 좋아해서 하고 싶었던 거라 듣는 게 적성에 맞는구나 싶었다. 그때만 해도 음악과 음향이 뭐가 다른지 잘 몰랐던 거다. 직접 해보니 그 차이를 알게 됐지만. 녹음실에 앉아 있는 선배들이 멋져 보여서, 저렇게 혼자 사운드 작업을 하면 나도 멋있어지려나 생각하기도 했다. 졸업 직후 입사해 5년간 미디어엑트에 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음향 전공 전문사를 다니고 있다.

앞서 말했듯 독립영화에서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특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만 같다.

요즘 미디어센터에서 강의를 한다. 그때마다 영화음향의 주요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중 제일 중요한 게 대사라고 강조한다. 영화에서는 대사가 잘 들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때문에 동시녹음이 영화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준다고도. 그러면 다들 ‘대사는 당연히 들리는 것 아니냐’ 반응했다가 그 ‘잘 들리는’ 결과물을 위한 작업의 디테일함에 놀라시곤 한다.

영화의 내용 전달을 돕고 영화를 좀 더 감성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사운드라고 생각한다.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이유 중 하나가, 독립영화 음향이라는 게 사실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어서 하는 작업이 항상 비슷해지는 거다. 영상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작업만 반복하다 보니 사운드는 뒷순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재개봉한 것을 봤다. 극장에서 보니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다. 왜일까 하다가 소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 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면, 사운드가 이렇게 잘 디자인되지 않았다더라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좋아했을까?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것은 우열을 나눌 수 없고, 항상 둘이 같이 가야 사람들이 좋아

하는 영화가 되겠구나 확신이 생겼다.

보통 어떤 식으로 작품과 함께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프리프로덕션부터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원을 받아 편집 후에야 믹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미디어엑트는 그 비율이 반반인 것 같다. 오랫동안 미디어엑트와 작업한 분들은 매번 와서 작업을 한다. 편집을 해보고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해결해 보고자 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번 전문적 사운드 에디팅을 경험해본 분들은 꼭 또 온다는 거다. 영화가 확 달라지는 걸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히 이런 공정이 있는 게 아니란 걸 해보면 안다.

아무래도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함께하면 동시녹음부터 신경 쓸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요즘 점점 그렇게 작업해보려 한다. 다큐멘터리는 촬영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에 미리 사운드를 어떻게 녹음할 것인지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사수인 표용수 기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했다. 동시녹음 작업자와 감독, 프로듀서를 함께 만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하거나 가능하면 하루쯤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려 한다. 근데 그렇다고 현장에 계속 가면 동시녹음 기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후반작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동시녹음 기사의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한다. 후반작업에서 소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능하고 작업하는 게 가능하니까. 상업영화를 하는 동시녹음 기사님들 중엔 믹싱에 대해 나보다 잘 아는 분들도 많다. 독립영화에서 아쉬운 것이 동시녹음이 한 명에 그치거나 마지막에 구하는 스태프, 손 남는 사람이 하는 일 정도로 여겨질 때다. 개선이 되면 좋겠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작업을 두루 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작업의 결은 같다. 전달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더 잘 전달지 고민하는 일 이니까. 가장 큰 차이는 후시녹음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닐까. 다큐멘터리는 후시녹음을 못하니까 현장에서 더 많은 소스를 녹음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음향 소스를 따기가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사운드 에디팅으로 수습을 하게 될 때가 많다. 최근엔 <당신의 사월>과 <우리는 매일매일>을 작업했는데 내가 소리를 넣을 때마다 다큐멘터리가 풍성해지는 걸 체감했다. 어쨌든 만한 소리를 디자인해 넣었을 때 감정이 생겨나는 걸 느꼈다. 표용수 기사는 다큐멘터리에서 폴리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언가를 만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 같은 주변의 소리가 극영화처럼 도드라지지 않는지언정 다큐멘터리를 채워준다고. 그게 다큐멘터리 작업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다. 한편 <당신의 사월>을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웃었다.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더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하곤 한다. 어렵지만 의미가 깊다.



<오목소녀>맨 동시녹음과 사운드 디자인을 모두 하지 않았다.

원래 표용수 기사를 통해 들어온 제의인데 한 명은 녹음실 한 명은 현장에 번갈아 나가며 작업하면 되겠다 하고 수락했다. 재미있었다. 동시녹음을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마침 음향 테스트를 위해 산 녹음 장비도 꽤 있어서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었다. 후반작업을 할 때도 편하더라. 어떻게 녹음했는지, 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니까. 학교에서도 동시녹음과 후반작업을 같이할 때가 있다. 이때의 장점은, 내가 직접 수습할 수 있다는 것.(웃음) 단점은 현장을 알다 보니 오히려 지레 한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다. 그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막을 때도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요즘은 분리를 하려고 한다. 나는 후반작업을 하고, 현장에 좋은 동시녹음 스태프가 있기를 바라는 거다. 가끔 동시녹음 상태가 정말 좋은 작업이 들어올 때면 '와, 내가 더 잘해야지' 싶어서 능률이 확 오른다. 그런 경험이 좋다. 그런 녹음은 예시로 남겨두고 감독들에게 보여준다. 이 정도로 녹음을 해 오셔야 한걸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웃음)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봐야 하고, 무엇보다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니깐 피로할 때도 있겠다.

그래도 혼자 작업하는 게 적성이긴 한 것 같다. 방음이 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만 틀어두고 하는 일인 것도 좋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결국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야 하니깐. 계속 큰 볼륨으로 소리를 듣고 집중해야 하다 보니 피로한 날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가 좋다. 작업 후 퇴근해서도 영화를 본다.(웃음)

독립영화는 전문적인 편집자 없이 감독이 직접 편집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편집 과정에서의 결함이 믹싱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다. 분담을 하면 미리 발견되었을지 모르는 문제를 모르고 계속 가져가는 거다. 작업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파일이 꼬이는 문제가 시간을 잡아먹으면 아쉽다.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길 때도 많다. 그래도 미디엑트는 밤샘작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조금 일찍 나오거나 늦게 갈 땐 있어서 철야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도 좀 넉넉하게 잡는 편이다. 너무 무리해서 일을 받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원래 작업하기로 했던 작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독립영화 사운드 디자이너끼리의 네트워크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독립영화 '도' 작업하는 곳들은 네다섯 있지만 독립영화만 하는 곳은 미디엑트 정도다. 그러다 보니 따로 독립영화 사운드 디자이너 네트워크는 없다. 나는 내 기준을 깐깐하게 두기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구해 완성도를 높이려는 타입인데 아무래도 음향에 대한 의견은 연출에 대한 의견보다 나눌 상대가 적다. 그래서 진학을 한 것도 있다. 사운드 분야는 아니지만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과 노조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하곤 한다.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표용수 실장이나 상상마당 김형희 과장 같은 분들을 보면 교육을 통해 나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근무했던 미디엑트는 일종의 커뮤니티로서도 의미 있는 곳이다. 수업도 하고 있지 않나.

맞다. 미디엑트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찾아오는 분들이 10, 20대부터 6, 70대까지 다양하다. 이유도 다양하다. 중학교에서 영화 동아리 담당교사가 되어서, 자기 작품을 찍고 싶어서, 미술팀 스태프인데 동시녹음이 궁금해서... 모든 분에게 1:1 맞춤 강의를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려 노력한다. 나는 학교나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사운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으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내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 머리가 아프다.(웃음) 수업을 하면서 내 발전도 더 빨라진 것 같다.

미디엑트를 나와 개인 작업자로 활동하면서의 차이가 궁금하다.

생활은 조금 더 좋아졌다. 내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는 믹싱 스케줄 관리, 견적표 작성 같은 일도 했는데 지금은 딱 사운드 작업만 하니깐 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사운드 작업엔 반드시 녹음실이란 공간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여전히 미디엑트에 가서 작업할 때가 많다. 어제도 미디엑트에 가서 일했다.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다. 미디엑트 식구들과 가깝고 친해서 작업하러 갈 때마다 너무 반갑다. 보통 직장생활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었다. 복인 것 같다.



동료들이 정말 좋았지만 어려움 자체가 없던 건 아니다. 지금도 자켓을 자주 입는데 사회초년생일 때 굳어진 스타일이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 ‘어린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냐’는 말을 들었다. 작업 중에 마우스를 획 뺏어가기도 하고 농담처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웃도 조금 성숙하게 입고 머리도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다. 지금은 적응했지만 사실 좋은 일이라곤 할 수 없을 거다. 만약 내가 몇 년 전 나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밖엔 무얼 또 할 수 있을지. 당시 곤란한 상황에서 표용수 실장에게 애길 하면 아주 빠르게 수습을 해주었다. 내가 사수의 위치가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어떨 때는 자존감이 더 떨어지기도 했다. 나이가 있는 남자가 말하는 건 듣고 어린 여자인 내 말은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답답했다. 그래도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수업을 하면서 감정이 해소되기도 했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내게 배움을 구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중해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져야겠지.

여성 스태프로서 겪는 고충에 많이 공감할 것 같다.

전해 듣기론 상업영화 녹음실에 결혼한 여성분들이 거의 없단 말을 들었다. 육아휴직을 쓴 분도 최근에야 처음 나왔단 애길 들었다. 나는 함께 일한 표용수 기사가 페미니스트고 여성 스태프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업무환경이 좋았지만 그게 흔한 일은 아닐 거다. 작업을 하며 여자 스태프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독립영화 외의 현장에 가 보면 촬영, 조명감독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그분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그래서 촬영감독이 여자인 현장을 가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작업한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을 고르자면.

김용삼 감독의 <혜영>이 떠오른다. 원래는 후시녹음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연으로 직접 출연한 김용삼 감독이 워낙 말도 빠르고 영화 중간에 랩도 한다. 일상언어도 자주 튀어나오고, 결국 과감히 후시녹음을 포기하고 기존의 톤을 살리고 대사를 최대한 잘 전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구나, 영화의 색깔에 음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촬영 현장에 전하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감독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동시녹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스태프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태프가 한 명이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사실 라인맨, 붐 오퍼레이터, 동시녹음 기사 셋이 있어야 제일 좋다. 동시녹음 장비는 촬영 장비에 비해 대여료가 낮으니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 마이크로 여러 소스를 녹음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현장에서 당장 구분하긴 어려우니까. 동시녹음 스태프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정확히 요구해야 한단 것. 동시녹음이 어려울 것 같을 땐 상황을 판단해서 의견을 말하고, 촬영이 소리에 지장을 줄 것 같을 때는

지체 말고 촬영감독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동시녹음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 않나 싶다. 모두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이다 보니 망설이게 되는 걸 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더불어 MOS(mit out sound, 녹음 없이 장면만 촬영하는 것)를 찍을 때 결정은 꼭 동시녹음 기사가 내려야 한다고 본다. 그걸 동시녹음 기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재미와 어려움을 듣고 싶다.

일단 어려움은,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 시험하게 된다는 것. 사운드 디자인도 창작이다 보니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 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감독을 설득해야 할 때의 부담감 같은 것도 언제나 존재한다. 좋은 점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내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다. 그런데 그걸 영화 속에서 적용하고 재현했을 때 관객 분들이 알아주고 좋아해주곤 한다. 그럴 땐 사람들에게 꼭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어야지, 귀를 트이는 소리를 제공해야지 뿌듯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곤 한다.

취재 / 김송요

사진 / 유수진





감독 임대형 / 극 / 101분 / 2017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열혈스타프상
제19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동절기 대비 마음 준비

대전에서 나고 자란 나는 광역시에서도 변화하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다. 우리 집에서는 백화점과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난 대전의 서쪽 도심과 금산이 비슷한 거리였다. 대안적 삶의 방식을 실험하기 위해 금산에 터를 잡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시외버스에 올랐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시작하고 흑백의 금산 풍경이 스크린에 펼쳐졌을 때, 나는 금산에 갈 때마다 마주한 거대한 인삼 동상이 영화에 나올 것인지를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건 금산에 드나드는 길목에서나 보는 것이었다. 일상적 풍경이 펼쳐지는 금산 시내, 내가 모르는 모습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예원은 나에게 어쩐지 그런 쓸쓸함을 주었다.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 일상의 풍경이 어떨지는 확인할 수 없는 존재. 모금산과 모스데반, 두 부자 사이에 선 예원은 영화 내내 서툴게 성장하는 둘 사이를 묵묵하게 이어준다. 예원이 이들의 느린 화해를 지탱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겐 단순히 '알아준다'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했다. 예원은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일 텐데 이상하게도, 객석에 앉은 나라도 예원의 공을 잔뜩 치하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모금산이 예원에게 건넨 한 마디가 어쩐지 나의 마음을 녹였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루는 오로지 이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VOD를 틀었다. 바로 찾아낼 수 있으리란 예상과는 달리 화면을 아무리 넘겨도 이 장면이 어디쯤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결국 처음부터 영화를 다시 보았다. 이 대사는 너무나도 별스럽지 않은, 모금산과 예원이 숲길을 걸어가는 장면에 잠깐 등장했고, 아무런 뒷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는 진심은 별스럽고 뜬금없는 순간에 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뻥하다면 뻥하고, 건조하다면 건조한, '고마워'도 '미안해'도 아닌, 그렇지만 꼭 닫힌 창 한마디가 예원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금산의 친구들에게 향후 생활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에서 불확실한 나날을 보내던 나는 스스로를 미워했다.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 항상 비관적인 결론을 냈다. 금산에 가고 있으면서도 가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런 마음은 숨길 새도 없이 드러났다.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는 나에게 한 친구가 불쑥 그런 말을 했다. 겨울이 휘어져 있으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내가 보는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갑작스러웠다. 누군가는 뻥하다고 생각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어떤 시기를 놓아주었다.

그날이 절기상 동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빠르게 어두워진 금산의 겨울 하늘을 보면서, 비로소 지나간 밤을 딛고 다시 낮이 길어지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했다. 모금산의 한 마디에 그날을 떠올렸다. 주연 모금산, 연출 모스데반의 영화를 찍는 겨울 동안, 촬영 박예원에게도 나와 같은 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에, 후련한 끝이라고 하기에, 어정쩡한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불명확한 때, 가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금산행 버스에 오르던 나처럼 예원도 무어라든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 예원 역시 그 여정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믿어본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 둔탁하고 투박한 인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이야기는 불발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역 청년들이 만드는 원주옥상영화제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과 영화 상영사업, 창작지원 및 공동체미디어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강원도 원주의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이하 원주센터)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 미디어 활동의 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시민프로그램 양성사업이 전국 센터 곳곳에서 진행되었고, 원주센터 또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영화제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영화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당시 센터를 거점으로 상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영화제를 만들어보면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상영동호회 회장을 주축으로 하여 시민프로그램 활동가, 영화제 자원활동가 및 미디어 강사 등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로 ‘기획단’을 구성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는 준비 단계부터 진행까지 지역민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가는 영화제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상영장으로 적합한 공간 섭외를 위해 원주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을 때 단연 돋보인 공간은 50년이 훌쩍 넘는 시장 건물 옥상이었다. 만장일치로 옥상이 영화제 장소로 선정되면서 영화제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원주옥상영화제’로 정해졌고, 우리는 이 옥상에서의 영화제를 시민들에게 장/단편 독립 예술영화를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영화제가 처음인 기획단은 다른 지역의 영화제를 탐방하기도 하고, 영화제 관계자들을 멘토와 강사로 섭외해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노하우에 대해 배우며 열심히 영화제를 준비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원주옥상영화제는 매년 개막작으로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점차 늘렸고, 밤새도록 영화를 관람하는 섹션은 3년 내내 진행했다. 여러가지로 고민의 깊이가 더해진 올해는 ‘영화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란 이름으로, 원주옥상영화제 소개와 더불어 다른 영화 활동가들의 사례를 듣고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영화제를 준비하는 동안 기획단원들 모두 본업이 있었기에 매주 회의시간을 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반엔 기획단 전원이 동의하는 상영작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가지 안건을 논의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효율적인 업무 진행 방식을 찾아 반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기획단을 대표해 실무를 진행할 상근 스태프를 내부에서 선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지원은 물론 기관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후원 요청을 시도 중이다. 1회 때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관객들의 후원금이었다. 이러한 응원에 힘을 얻어 영화제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제에 필요한 물품들은 지역 단체와 상인들로부터 협찬을 받아 채워갔고, 올해는 영화제에서 단체 홍보부스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했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열린 ‘ACROSS THE CINEMA 2019-커뮤니티시네마,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의 출발’ 포럼에 원주옥상영화제 기획단이 참여했다. 우리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29개의 영화 문화 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기회的时间이었고, 무엇보다 ‘ACROSS THE CINEMA FELLOW’ 시상식에서 공동수상을 하여 한층 더 뜻깊은 자리였다. 이 상은 원주옥상영화제가 커뮤니티시네마의 한 모델로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외부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 내부적으로도 기획단 활동을 통해 각자 얻고자 하는 가치와 필요를 최대한 채워나가고, 보다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하려 한다.

원주옥상영화제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새로운 활동가와 문화단체가 결합하여 더욱 완성도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또 내년 원주 ‘여단가의 옥상’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글 / 한누리(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무차장)

SIFF NOW

독립영화를 통해 마주본 서울과 스위스

—
서울독립영화제2019
월드 쇼케이스

‘서울X취리히:
스위스 영화, 서울을 만나다’

서울독립영화제와 스위스단편영화제가 공동 주관한 해외 쇼케이스, ‘서울X취리히: 스위스 영화, 서울을 만나다’가 9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이틀간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개최되었다. 스위스 영화와 한국 독립 영화의 교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쇼케이스는, 더 나아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스위스 감독과 한국 감독의 만남을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서울X취리히: 스위스 영화, 서울을 만나다’에서는 스위스의 장편영화 2편과 단편영화 5편, 그리고 한국의 단편영화 4편이 상영되었다. 상영 후에는 창작자들과 다채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9월 28일 <크리스 더 스위스> 상영 후엔 2009년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SUISA 음악재단상’과 ‘스위스 퀴즈 영화상’에서 최우수 음악상을 4회 수상한 마르셀 바이드 음악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 마르셀 바이드 음악 감독은 운이 좋게도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20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회상했다. 그는 수없이 부딪쳐가며 음악 감독으로서의 길을 열어갔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의 장점을 발견하려 노력한다며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관객들과 공유했다.

다음날인 9월 29일(일) 스위스 단편 섹션의 상영이 끝난 후엔 <공항에서>를 연출한 미카엘라 물러 감독과 <피부와 마음>을 연출한 박지연 감독이 참여한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었다.





사진 우측부터
황혜림, 박지연, 미카엘라 물러
카트린 기각스

GUEST VISIT

참석: 미카엘라 물러(Michaela Müller, <공항에서> 연출)

박지연(<피부와 마음> 연출)

카트린 기각스(Katrin Gyga, 스위스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진행: 황혜림 프로그래머

황혜림: 이번 ‘서울X취리히: 스위스 영화, 서울을 만나다’의 상영작들은 여성 감독의 영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성 감독들의 약진은 최근 스위스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한다.

카트린 기각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여성 감독과 그들의 작품을 한국에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여성 감독’이라 하지 않겠다. 우리가 ‘남성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며 스위스에서도 확실히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고 있다. 스위스 영화 산업 안에서도 이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좋아, 행동하겠어!”라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감독들이 많아지고, 그런 세대들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카엘라 물러: 새로운 영화를 구상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또한 영화제 심사위원부터 산업 관계자, 토론 패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여성들에게 플랫폼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에는 SWAN(Swiss Women’s Audiovisual Network)이라는 조직이 있다. ‘스위스 여성 시청각 미디어 네트워크’, 영화영상산업에 종사하는 배우, 작가, 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SWAN 활동을 통해 영화 산업 안에서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동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

황혜림: ‘관객과 어떻게 만나지?’와 같은 고민을 양국 감독님들이 모두 하셨을 것 같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어떻게 관객과 만나고 계신지, 그리고 관객과 만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는지 궁금하다.

박지연: 사실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학교도 많고, 학과나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영화제에서 선택해주지 않는 이상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요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작품들을 다 올려놓는다.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꼭 영화제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으니, 그런 작품들을 보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카엘라 물러: 우리도 유튜브, 비메오와 같은 인터넷 채널들을 활발하게 활용하려 한다. 스위스의 애니메이션협회 같은 경우, 그런 단편 영화들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회원제로 운영한다. 작가는 작품을 업로드하고, 관객은 페이 퍼 뷰(Pay Per View)로 돈을 내며 작품을 볼 수 있다. 박지연 감독님의 작품들은 어디서 볼 수 있나?

박지연: 오래된 작품 관람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보여줄 곳이 없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거기에 오래된 작품들을 다 올려놓았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간간히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카트린 기각스: 옛날에는 단편영화라는 것이 광고나 극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영화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영화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스위스단편영화제에서는 단편영화를 좀 더 많이 보여 드리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한다. 약간의 이용요금을 내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단편영화도 저작권 등에 관한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 & 정리 / 이지윤(서울독립영화제 홍보팀)

영화를 사랑해서 극장에 출몰하는 미지의 생명체 '토끼리'. NOW에서는 매 호 토끼리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립영화와 만납니다. 토끼리 손을 잡고 극장이라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조찬모임 >



④ 토끼 21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미디액트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에무시네마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속초 동아서점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끄)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거핀
광주독립영화관 GIFT
순천 책방심다
목포 시네마라운지 MM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대구영상위원회
안동 중앙시네마
대구 오오극장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죤

NOW NO.19 2019.10

발행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지은, 이나현, 이은지

편집 김송요

진행 이지윤

등 록 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문의 02-362-9513 / 02-334-3166 / siff@siff.kr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